

2차 규제자유특구 본격 출범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전북, 중대형 상용차·초소형 특장차 친환경차 선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등 예산 지원 세제혜택 부여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자동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 없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스트레이더(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7개 특구 중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 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지난 8월에 개정된 '기업협력법' 상의 지원 대상은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유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 등을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읍부조관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며,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어떤 선인장이 잘 컸나'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이 12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선인장 온실에서 2019년 점목선인장 육성계통 평가회를 갖고 진지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내일 수능... 도내 61개 시험장서

수험생 1만9159명 응시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도내 6개 시험지구 6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수능에는 도내에서 총 1만 9159명이 응시하며,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해당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으로 부정행위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제1선택, 제2선택) 각 시험 종료후 해당 과목(영역) 답란 이외 마킹,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책상스터카에 적힌) 이외 문제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문제를 풀거나 동시에 2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 처리된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휴대폰 소지 1건,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4건 등 총 5건의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위반으로 안타깝게 부정행위 처리된 사례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수능 시험관리를 위해 운영위원, 감독교사 등 총 3,817명을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수능 하루 전인 13일 오전 10시 수험생 예비소집 및 감독관 예비소집을 실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예비 소집은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은 후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영역과 과목이 원서 접수 때 자신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시험 당일 입실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성적표는 오는 12월 4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교부된다.

/장은성 기자

삼락농정 예산 1조452억원

전북도, 전년보다 9.8% 증액

전북도는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도정 제1과제로 삼고 추진중에 있는 삼락농정 2020년 예산(안)으로 1조452억원을 편성했다.

전북도 2020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안)은, 1조452억원으로 전년도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9517억원 대비 935억원(9.8%)이 증가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특색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라북도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 61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한, 2020년부터는 생산물량이 과잉되어 산지폐기 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에게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액을 2019년 10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비발안덕을 만들어 주기 위한 청년창업농 전복정착 프로젝트 4개 사업에 11.3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생생농업인 웰스케어 지원을 위해 60억원(도비 33, 시군비 33)이 신규로 편성됐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개최
8면 -정읍서 '박준승 기념관' 개관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